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 간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대한 비교

김은희*, 이은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생명공학과 생명의료 연구의 급속한 진전으로 생명의 기간 연장과 생명 탄생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¹⁻³⁾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문제는 그 본질과 범위가 과거와 차이가 있어⁴⁾ 기존의 윤리적 기준이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윤리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5,6)} 또한 상업주의의 발달로 인해 초래된 극도의 개인주의적 사고성향은 도

덕적 위기상황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현상은 의료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며서 간호사들은 인간의 생명과 권리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으며⁸⁾ 이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사가 윤리적 이슈를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경험하는 판단의 어려움은 간호업무 수행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간호사는 쉽게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기 방어적 행동을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⁹⁻¹¹⁾

교신저자: 김은희,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055-979-9532, kkeh35@hanmail.net

*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 1) 유명숙, 박현숙,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5 ; 8(2) : 140-153.
- 2) 김상득, 21세기 의학 및 생명공학과 생명의료윤리, 범한철학회 2001 ; 23 : 71-94.
- 3) 안혜영, 조병선, 최숙희 등, 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생명 윤리 의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8 ; 14(1) : 98-107.
- 4) Branchiate MA, Ethical problem in respiratory care: the role of the law, Thorax 2001 ; 56(1) : 78-81.
- 5) 공병혜, 생명의료윤리와 간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2 ; 1-19.
- 6) 조영미, 한성숙, 가정전문간호사의 윤리적 가치인식, 윤리적 갈등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가정간호학회지 2005 ; 12(1) : 1-40.
- 7) 권영미, 간호학생의 도덕 판단과 윤리적 가치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2 ; 8(1) : 17-28.
- 8) 한성숙, 엄영란 등, 간호윤리학(제3판), 서울 : 대한간호협회, 2010 : 19-21.
- 9) Smith SP, Everyday ethics for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the launch of royal college of nursing ethics forum, J Adv Nurs 1991 ; 16(10) : 1265-1266.
- 10) Mitchell GJ, Nursing diagnosis: an ethical analysis,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91 ; 23 : 99-103.
- 11) 박현주,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간호행정학회지 2009 ; 15(1) : 128-135.

이는 미래의 간호계를 이끌어 나아 갈 현재의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즉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은 학교에서 배운 윤리교육만으로는 복합적인 윤리문제를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12,13)} 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14,15)} 이러한 윤리적 갈등은 차후 간호실무의 질적 향상과 직무만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전문직 간호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¹⁶⁾ 또한 간호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윤리적 문제는 간호 본질을 확인하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어¹⁷⁾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별력을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¹⁸⁾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이전 단계인 간호학생들이 바람직하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장차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¹⁹⁾ 또한 장차 간호사가 되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므로²⁰⁾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되고 직무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²¹⁾

간호학생들이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과 도덕적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간호교육 과정을 확립하여야 한다.²²⁾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윤리교육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면 이전에 비해 양적증가는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교육에 할애되는 시수 부족과 주입식 윤리교육 방법 및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간호윤리 교육의 질적 성장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3,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에서 간호윤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새내기이면서 임상실습경험이 전혀 없는 1학년과 임상실습 등과 같이 전공과목 이수로 직·간접적으로 윤리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4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윤리성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간호 윤리교육의 방향 제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정민, 간호학생이 경험한 의료현장의 윤리적 문제, 한국의료윤리학회 2001 ; 4(2) : 195-214.
 13) 한성숙, 박현애, 안성희 등, 간호학생이 경험한 간호윤리문제와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001 ; 31(5) : 846-857.
 14) Cameron ME, Value, be, do: guidelines for resolving ethical conflict, J of Nurs Law 2000 ; 6(4) : 15-24.
 15) 한성숙, 박현애, 안성희 등, 앞의 글, 2001.
 16) 조영이, 한성숙, 앞의 글, 2005.
 17) 박현주, 앞의 글, 2005.
 18) 한성숙, 엄영란 등, 앞의 글, 2010.
 19) Peter E, The interplay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particular: research ethics standards and the practice of research as symbolic, Nurs Sci Q 2006 ; 19(1) : 20-24.
 20) 현미열, 이종은, 김정희, 인지행동요법이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역기능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06 ; 15(2) : 144-151.
 21) 조영이, 한성숙, 앞의 글, 2005.
 22) Patricia MK, Matthew JM, Moral judgment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Insights from the defining issues test, J Moral Educ 2002 ; 31(3) : 247-270.
 23) 박진희, 김용순, 김원옥, 우리나라 간호윤리 교육의 현황 및 전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 12(3) : 251-260.
 24) 이미애, 간호학생의 윤리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2008 ; 14(1) : 26-34.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의 생명의료윤리의 특성과 성향을 비교하여 이 결과를 간호윤리 교육의 체계성 확립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별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을 알아본다.
- 대상자별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을 비교한다.
- 대상자별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을 비교한다.

3. 용어 정의

1)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

생명의학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되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된 용어이다.²⁵⁾ 본 연구에서는 이규숙²⁶⁾의 29문항과 최창섭²⁷⁾이 사용한 25문항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권선주²⁸⁾가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하위영역으로는 태아생명권, 인공 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미숙아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생명공학에 관한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윤리성향을 의미하고, 측정점수가 낮을수록 공리주의적 윤리성향을 의미하는데,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의무주의(deontology)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행위 법칙이 있다는 절대적 도덕법칙을 강조하는 윤리설로 이는 행위의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을 판별하는 궁극적 기준이며,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실천이성의 법칙이다.²⁹⁾

• 공리주의(utilitarianism)

유용성의 원리가 도덕적 선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윤리설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한다.’ 즉,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생각하고 행위가 행복을 촉진하는 경우 선이고, 반하는 경우 악으로 구분되었다.³⁰⁾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A시와 G도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의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6개 간호학과를 편의 추출하여 임상실습 경험이 전혀 없는 1학년과 전공과목 이수와 임상실습 등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

25) 임종식, 생명의료윤리학과 윤리이론,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1998 ; 1(1) : 1-10.

26) 이규숙,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27) 최창섭, 강릉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생명윤리 의식,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8) 권선주, 앞의 글, 2003.

29) 한성숙, 엄영란 등, 앞의 글, 2010.

30) 한성숙, 엄영란 등, 앞의 글, 2010.

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각 대학교의 담당 교수께 본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승인 후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를 먼저 모든 학생에게 배부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참여 동의서란에 동의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그대로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누가 동의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학년 487명과 4학년 341명이었으나,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는 1학년 11부와 4학년 6부로서 총 17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811부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규숙(2002)의 29문항과 최창섭(2002)이 사용한 25문항의 설문지를 권선주(2003)가 9개 영역의 4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 1문항을 제외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문항은 총 48문항(태아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5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미숙아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생명공학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화하고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은 역환산 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윤리성향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공리주의적 윤리성향을 의미한다.

권선주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α 0.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1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별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대한 비교는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별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라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s test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88.9%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종교는 52.3%에서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2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불교(17.5%), 천주교(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최소한으로 활동한다'가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활동한다' 18.5%, '때때로 활동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11)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Freshman	Senior
		(n=811)	(n=476)	(n=335)
		n (%)	n (%)	n (%)
Gender	Male	90 (11.1)	63 (13.2)	27 (8.1)
	Female	171 (88.9)	413 (86.8)	308 (91.9)
Religion	Protestant	194 (23.9)	108 (22.7)	86 (25.7)
	Catholic	81 (10.0)	45 (9.5)	36 (10.7)
	Buddhist	142 (17.5)	89 (18.7)	53 (15.8)
	None	387 (47.7)	230 (48.3)	157 (46.9)
	Others	7 (0.9)	4 (0.8)	3 (0.9)
Level of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st active	31 (3.8)	16 (6.5)	15 (8.4)
	Active	15 (18.5)	91 (37.1)	59 (33.1)
	Somewhat active	90 (11.1)	58 (23.7)	32 (18.0)
	Least active	152 (18.7)	80 (32.7)	72 (40.4)
Family number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Yes	101 (12.5)	59 (12.4)	42 (12.5)
	No	710 (87.5)	417 (87.6)	293 (87.5)
Bioethic related club activity	Yes	508 (62.6)	325 (68.3)	183 (54.6)
	No	303 (37.4)	151 (31.7)	152 (45.4)
Level of participation in campus group activity	Most active	66 (8.1)	44 (13.5)	22 (12.0)
	Active	269 (33.2)	185 (56.7)	84 (45.7)
	Somewhat active	113 (13.9)	75 (23.0)	38 (20.7)
	Least active	62 (7.6)	22 (6.7)	40 (21.7)
Types of club activities	Volunteering activity	186 (22.9)	124 (37.9)	62 (33.7)
	Hobby	97 (12.0)	60 (12.6)	37 (20.1)
	Education & reserch	72 (8.9)	43 (13.1)	29 (15.8)
	Alumni meeting	21 (2.6)	14 (4.3)	7 (3.8)
	Others	135 (16.6)	86 (26.3)	49 (26.6)
Areas of living	Megalopolis	443 (54.6)	261 (54.8)	182 (54.3)
	Small town	254 (31.3)	147 (30.9)	107 (31.9)
	Rural	114 (14.1)	68 (14.3)	46 (13.7)

<Table 2> Comparison of Biomedical Ethics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First 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n=811)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Freshman	Senior	χ^2 (p)
		(n=811)	(n=476)	(n=335)	
		n (%)	n (%)	n (%)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Yes	767 (94.6)	438 (92.0)	329 (98.2)	15.45 (<0.001)
	No	25 (3.1)	23 (4.8)	2 (0.6)	
	Not interested	19 (2.3)	15 (3.2)	4 (1.2)	
Source for information or knowledge of biomedical ethics	TV	258 (31.8)	182 (38.2)	76 (23.0)	75.54 (<0.001)
	Book, newspaper, magazine	86 (10.6)	49 (10.3)	37 (11.2)	
	School class	301 (37.1)	117 (24.6)	184 (55.8)	
	Internet	98 (12.1)	71 (14.9)	27 (8.2)	
	Training, lecture	11 (1.4)	7 (1.5)	4 (1.2)	
	Others	16 (2.0)	14 (2.9)	2 (0.6)	
Ethical attitude	Very firms	147 (18.1)	93 (19.5)	54 (16.2)	14.08 (0.003)
	Sometimes confused	240 (29.6)	122 (25.6)	118 (35.2)	
	Depends on the situation	409 (50.4)	248 (52.1)	161 (48.2)	
	Not realistic	13 (1.6)	12 (2.5)	1 (0.3)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Yes	351 (43.3)	184 (38.7)	167 (49.9)	10.53 (0.005)
	No	367 (45.3)	230 (48.3)	137 (40.9)	
	Not interested	93 (11.5)	62 (13.0)	31 (9.3)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esent educational system for biomedical ethics	Enough	204 (25.2)	88 (18.5)	116 (34.6)	27.20 (<0.001)
	Not enough	607 (74.8)	388 (81.5)	219 (65.4)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thical proble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ife science	Yes	738 (91.0)	429 (90.1)	309 (92.2)	2.39 (0.303)
	No	41 (5.1)	24 (5.0)	17 (5.1)	
	Not interested	32 (3.9)	23 (4.8)	9 (2.7)	
Intention to attend on biomedical ethical classes	Yes	521 (64.2)	307 (64.5)	214 (63.9)	5.17 (0.075)
	No	119 (14.7)	60 (12.6)	59 (17.6)	
	Not interested	171 (21.1)	109 (22.9)	62 (18.5)	

<Table 3> Comparison of Biomedical Ethical Values between First 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n=811)

Variables	Total (n=811)		Freshman (n=476)		Senior (n=335)		t	p
	M±SD	Rank	M±SD	Rank	M±SD	Rank		
Right to life of fetus	3.19±0.53	2	3.33±0.54	1	3.13±0.52	2	2.64	0.008
Artificial abortion	2.40±0.42	8	2.44±0.45	8	2.34±0.38	8	3.53	<0.001
Artificial insemination	2.92±0.45	5	2.91±0.46	5	2.93±0.43	5	-0.82	0.412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09±0.42	3	3.11±0.43	3	3.07±0.40	4	1.25	0.212
Right to life of newborn	3.24±0.52	1	3.28±0.52	2	3.19±0.51	1	2.70	0.007
Euthanasia	2.46±0.48	7	2.47±0.51	7	2.45±0.44	7	0.71	0.481
Organ transplantation	3.07±0.45	4	3.06±0.45	4	3.08±0.46	3	-0.79	0.433
Brain death	2.06±0.36	9	2.09±0.35	9	2.02±0.36	9	2.83	0.005
Human biotechnology	2.67±0.36	6	2.68±0.38	6	2.66±0.34	6	-0.65	0.515
Total	2.79±0.24		2.81±0.25		2.76±0.23		2.56	0.011

M±SD : mean±standard deviation

한다' 11.1%로 응답했다. 가족 구성원 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12.5%이었다. 현재 동아리에 활동하는 대상은 62.6%이었는데, 활동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영역은 '적극적이다'에서 33.2%이었고 그다음 '가끔 참여한다' 13.9%, '매우 적극적이다' 8.1%, '최소한으로 참여한다' 7.6%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동아리 목적으로는 봉사(22.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기타(16.6%), 취미(12.0%), 교육 및 연구(8.9%), 동문모임(2.6%)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4.6%에서 특별시 혹은 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중소도시(31.3%), 농어촌지역(14.1%)으로 나타났다.

2.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간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과 차이 비교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과 그 차이에 대한 비교는 <표 2>와 같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학년은 92.0%, 4학년은 98.2%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총 2.3%로 나타나 두 그룹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생명의료윤리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서는 1학년은 TV(38.2%), 학교수업(24.6%), 인터넷(14.9%), 각종 서적(10.3%)순이었는데, 4학년은 학교수업(55.8%), TV(23.0%), 각종 서적(11.2%), 인터넷(8.2%)순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확립정도에 관

한 질문에서는 1학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52.1%), 때때로 혼돈스럽다(25.6%), 확고하다(19.5%), 확실하지 않다(2.5%)로 나타났고, 4학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48.2%), 때때로 혼돈스럽다(35.2%), 확고하다(16.2%), 확실하지 않다(0.3%) 순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다($p=0.003$). 현재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1학년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5%, 4학년은 65.4%에서 응답하여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생명의료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학년은 '없다'고 대답한 대상이 48.3%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은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49.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관심이 없다'로 응답한 대상은 1학년 13.0%, 4학년 9.3%로 나타나,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차후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이 전체 64.2%이었고, '관심없다'고 응답한 대상도 21.1%로 나타났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생명의료윤리 문제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91.0%이었다.

3.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간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 비교

두 집단 간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 비교는 <표 3>과 같다. 먼저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총평균점수를 보면 1학년은 2.81점, 4학년은 2.76점으로 1학년이 4학년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p=0.011$).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모

두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한 순서로 나열해 보면 미숙아생명권, 태아생명권, 산전진단, 장기이식, 인공수정, 생명공학이었고, 공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순서로 나열해 보면 인공임신중절, 뇌사, 안락사이었다.

두 집단 간에 윤리적 성향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태아생명권(1학년은 3.33점, 4학년은 3.13점)($p=0.008$)과 미숙아 생명권(1학년 3.28점, 4학년 3.19점)($p=0.007$)으로 1학년이 4학년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인공임신중절(1학년은 2.44점, 4학년은 2.34점)($p<0.001$)과 뇌사(1학년은 2.09점, 4학년은 2.02점)($p=0.005$)에서 4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공리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간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차이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차이 비교는 <표 4>와 같다. 1학년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이 2.72점, 여자는 2.82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윤리성향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두 집단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3$). 종교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사후 검정한 결과 기독교(2.90점)가 무교(2.71점)보다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사후검정을 한 결과 농어촌(2.92점)과 소도시(2.80점)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도시

<Table 4> Comparison of Biomedical Ethical Valu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First 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n=811)

Variables	Classification	Freshman	t/F (p)	Scheffe	Senior
		(n=476)			(n=335)
		M±SD			M±SD
Gender	Male	2.72±0.27	9.12 (0.003)		2.81±0.24
	Female	2.82±0.24			2.76±0.23
Religion	Protestant	2.90±0.27	5.49 (<0.001)	1>4	2.80±0.25
	Catholic	2.78±0.22			2.84±0.23
	Buddhist	2.81±0.23			2.69±0.21
	None	2.71±0.24			2.75±0.23
	Others	2.75±0.16			2.81±0.29
Level of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st active	2.86±0.28			2.77±0.18
	Active	2.89±0.26			2.81±0.26
	Somewhat active	2.82±0.26			2.79±0.25
	Least active	2.80±0.23			2.75±0.23
Family number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Yes	2.84±0.25			2.81±0.27
	No	2.80±0.25			2.76±0.23
Bioethical related club activity group	Yes	2.80±0.25			2.80±0.24
	No	2.83±0.26			2.72±0.22
Level of participation in campus group activity	Most active	2.81±0.27			2.85±0.24
	Active	2.81±0.25			2.79±0.23
	Somewhat active	2.79±0.23			2.74±0.23
	Least active	2.75±0.24			2.82±0.26
Types of club activities	Volunteering activity	2.82±0.24			2.79±0.22
	Hobby	2.76±0.27			2.76±0.25
	Education & research	2.86±0.24			2.80±0.28
	Alumni meeting	2.69±0.15			2.62±0.20
	Others	2.78±0.25			2.85±0.23

<Table 4> Continued

Variables	Classification	Freshman (n=476)		Scheffe	Senior (n=335)	
		M±SD	t/F (p)		t/F (p)	Scheffe
Areas of living	Megalopolis	2.78±0.25	0.79 (<0.001)	3>1,2	2.79±0.22	
	Small town	2.80±0.24			2.74±0.26	
	Rural	2.92±0.25			2.73±0.23	

M+SD : mean±standard deviation

(2.78점)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학년에서는 동아리 참여유무에 따라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차이가 있었는데(p=0.005), 동아리에 참여하는 대상(2.80점)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대상(2.83점)이 의무주의적 성향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

대상자별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차이 비교는 <표 5>와 같다. 1학년에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24), 알고 있다(2.82점)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러하지 않은 대상자(2.73점)나 관심이 없다(2.67점)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확립정도에 관한 질문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사후 검정한 결과 확고하게 확립된 대상자(2.91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자(2.76점)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윤리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생명의료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차이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이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한 결과 갈등경험이 있는 대상자(2.86)가 전혀 관심이 없는 대상자(2.70)에 비하여 의무주의

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사후 검정한 결과 참여하겠다(2.85점)고 응답한 대상이 참여하지 않겠다(2.72점)와 관심없다(2.74점)로 응답한 대상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생명의료윤리 문제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사후 검정한 결과 그렇다(2.82점)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아니다(2.67점)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학년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7). 사후 검정한 결과 인터넷(2.85점)을 통해 획득한 대상자가 강좌, 강의(2.51점)를 통해 획득한 대상보다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확립정도에 따른 차이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확고하다(2.87점)고 응답한 대상자가 때때로 혼돈스럽다(2.78점), 상황에 따라 다르다(2.72점), 관심없다(2.50점)라

<Table 5> Comparison of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al Values according to Biomedical Ethics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811)

Variables	Classification	Freshman (n=476)		t/F (p)	Scheffe	Senior (n=335)		t/F (p)	Scheffe
		M±SD				M±SD			
The experience of attending biomedical ethics related classes	Yes	2.82±0.25		3.75 (0.024)	1>2,3	2.77±0.23			
	No	2.73±0.18				2.48±0.13			
	Not interested	2.67±0.29				2.73±0.13			
Main source of acquired information/knowledge on biomedical ethics	TV	2.81±0.23		3.22 (0.007)	4>5	2.71±0.23			
	Book, newspaper, magazine	2.84±0.26				2.73±0.26			
	School class	2.82±0.24				2.79±0.22			
	Internet	2.78±0.27				2.85±0.28			
	Training, lecture	2.81±0.33				2.51±0.17			
	Others	2.91±0.34				2.76±0.12			
Self evaluated degree of Ethical values	Very firms	2.91±0.29		8.80 (<0.001)	1>3	2.87±0.29		5.97 (0.001)	1>2,3>4
	Sometimes confused	2.83±0.26				2.78±0.29			
	Depends on the situation	2.76±0.22				2.72±0.22			
	Not realistic	2.71±0.2				2.50±0.00			
Experience of conflicts regarding biomedical ethics	Yes	2.86±0.27		9.97 (<0.001)	1>3	2.81±0.24		5.91 (0.003)	1>2
	No	2.80±0.22				2.71±0.22			
	Not interested	2.70±0.23				2.75±0.23			
Sufficiency of bioethical classes in current educational system	Enough	2.82±0.27				2.79±0.23			
	Not enough	2.81±0.24				2.75±0.23			
Possibility of increasing ethical proble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ife science	Yes	2.82±0.25		7.18 (0.001)	1>2	2.77±0.23			
	No	2.67±0.22				2.67±0.26			
	Not interested	2.69±0.24				2.82±0.21			

<Table 5> Continued

Variables	Classification	Freshman		Senior		Scheffe
		(n=476)	t/F (p)	(n=335)	t/F (p)	
		M±SD		M±SD		
Intention to attend on biomedical ethical classes	Yes	2.85±0.25	12.78	2.79±0.24	4.32	1>2,3
	No	2.72±0.25	(<0.0001)	2.70±0.23	(0.014)	
	Not interested	2.74±0.22		2.74±0.20		

M±SD : mean±standard deviation

고 답변한 대상자들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윤리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때때로 혼돈스럽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한 대상자가 관심 없다라고 답변한 대상자들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윤리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 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3), 사후 검정한 결과 있다(2.81점)라고 응답한 대상이 없다(2.71점)라고 응답한 대상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4). 사후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하겠다(2.79점)고 응답한 대상이 참여하지 않겠다(2.67점)고 응답한 대상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인간 생명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간호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확고한 생명의료윤리 가

치관을 강조하게 되는데,³¹⁾ 이는 최근 임상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윤리 문제에 간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간호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임상현장에서 빈발하는 윤리적 문제와 갈등을 소재로 하여 이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33,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특성과 윤리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여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편 시에 윤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은 원천에 관한 질문에서는 1학년은 TV가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학교수업(24.6%), 인터넷(14.9%), 책, 잡지, 신문(10.3%)순이었으며, 4학년은 학교수업(55.8%), TV(23.0%), 각종 서적(11.2%), 인터넷(8.2%)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1학년은 4학년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정보획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

31) 권윤희. 앞의 글. 2009.

32) 하주영, 김동희, 황선경.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9 ; 15(2) : 216-224.

33) 안혜영, 조병선, 최숙희 등. 앞의 글. 2008.

34) Crisham P. Measuring moral judgement in nursing dilemmas. Nursing Research 1981 ; 30(2) : 104-110.

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정보화시대의 핵심적 역할로 대두되는 것이 대중매체와 컴퓨터이고 이중 TV는 인간생활과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기적이고 손쉽게 개인의 태도형성에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³⁵⁾ 또한 20대의 정보 획득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대중매체로³⁶⁾ 대중매체의 정보가 국민의 인식이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³⁷⁾ 따라서 간호윤리 교육 제공 시 내용이 검증된 TV 프로그램 사례로 활용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촉진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윤리의식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제안하는 바이다.

대상자별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을 비교해 보면 본인이 인지하는 윤리적 가치관의 확고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확고하다고 응답한 대상은 1학년이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때때로 혼돈스럽다’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에서는 4학년이 1학년에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3$). 생명의료윤리 문제로 갈등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학년이 38.7%, 4학년이 49.9%로 4학년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취지가 유사한 논문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공병혜의 연구(2002), 조영이와 한성숙(2005)의 연구, 이순희, 김숙영과 김정아(200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윤리적 가치

관으로는 문제에 대한 대처와 의사결정에 한계를 체험함으로써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윤리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계성 있는 윤리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38,39)} 이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4학년도 1학년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더 많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학년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를 직·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임상실습 등과 같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동안 의료윤리 문제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노출됨으로 오는 혼란과 갈등임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교육의 질과 양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4.8%에서 현재의 윤리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차후 생명의료윤리 관련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학생이 64.2%이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대상은 35.8%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을 비교해 보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대상은 1학년 64.5%, 4학년 63.9%,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은 1학년 12.6%, 4학년 17.6%로 학년이 높을수록 참여의사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의료윤리적 문제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

35) 서선진. 인터넷과 대중매체가 여자중학생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36) 안현미. 대중매체 영양정보가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37) Gorn GJ, Goldberg ME.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V advertising to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2 ; 8 : 86-88.
 38) Crisham P. Measuring moral judgement in nursing dilemmas, Nursing Research 1981 ; 30(2) : 104-110.
 39) 이미애, 김익주, 홍성훈. DIT를 사용한 간호학생의 도덕판단력 고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5 ; 8(2) : 105-115.

에서는 91%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간호학생들이 미래 생명과학의 발달과 관련하여 생명의료윤리 문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기준 재확립이 대학생 시절 학교교육을 통해 확고히 정립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⁴⁰⁾ 간호대학생들의 윤리교육 참석에 대한 의지의 감소는 장차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될 때 윤리적 갈등으로 인한 딜레마로 간호업무 능력 저하뿐 아니라 전문직 간호발전에 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⁴¹⁾ 차후 연구에서는 교육 참석을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그 요인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집단 간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 비교에서는 1학년이 4학년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순희, 김숙영과 김정아의 연구(2007)에서도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임상실습을 한 학생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미화의 연구에서는⁴²⁾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1학년은 의무주의적 성향이었고, 임상실습 경험 이후 공리주의적 성향을 취하다 윤리에 대한 재교육 이후 다시 강한 의무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다양한 윤리문제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윤리적 기준에 혼돈이 초래되어 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동일한 대상자를 가지고 시간경과에 따라 생명

의료윤리적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종단적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생명의료윤리의 하위영역을 비교한 결과에서 1학년과 4학년 모두 의무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는 미숙아생명권, 태아생명권, 산전진단, 장기이식, 인공수정, 생명공학이었는데, 여기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태아생명권과 미숙아의 생명권으로 1학년이 4학년보다 더 강한 의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 모두 공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는 인공임신중절, 뇌사, 안락사이었는데 이중 통계학적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인공임신중절과 뇌사이었으며, 4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공리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중 안혜영 외(2008)의 연구에서는 임신중절, 뇌사, 안락사 등에서 의무주의적 경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권윤희(2009)의 연구와 권선주(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생명권에서는 의무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공임신중절에서는 공리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태아와 미숙아 생명권에 대한 약한 의무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4학년은 인공임신중절과 뇌사에서는 1학년에 비하여 공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의 이념인 생명권 존중에 대한 상반되는 임신중절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음지 속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⁴⁴⁾ 인류역사 이래 가장 오랫동안 생명윤리적

40)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간호학생의 간호관련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 간호행정학회지 2007 ; 13(2) : 145-155.

41) 김현경.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003 ; 9(3) : 459-480.

42) 박미화.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변화양상.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 ; 6(2) : 199-217.

43)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앞의 글. 2007.

44) 류인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 문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문제로 논쟁화되어 왔다.⁴⁵⁾ 즉 여성의 선택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와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 여기는 보수주의는 지금까지 격렬한 윤리적·사회적·법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으며,⁴⁶⁾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중절에서는 여성의 선택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더 중요시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이라고 유추해 본다. 그리고 뇌사에서도 공리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뇌사와 관련된 메스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존엄사’ 등의 강한 지지 여론으로 뇌사 인정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⁴⁷⁾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현장에서 입원환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생명 유지를 위한 고통과 끊임없는 삶의 유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죽음의 체험 등과 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윤리적 갈등이 대상자의 윤리적 기준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⁴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과과정 편성 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윤리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학년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기독교가 무교보다, 농어촌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러하지 않은 대상자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해 확고하게 확립된 대상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자에 비하여, 생명의료 윤리적 문제로 인

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전혀 관심이 없는 대상자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관심없다고 응답한 대상에 비하여,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의료윤리 문제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4학년에서는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서만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명의료윤리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대상자가 강좌, 강의를 통해 획득한 대상들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서는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확립정도가 확고한 대상이 그 외 대상자들에 비하여, 때때로 혼돈스럽다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한 대상자가 관심없다고 답변한 대상자들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에 비하여,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인 영역은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고, 생명의료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생명의료윤리 관련 강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서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로는 권윤희(2009)의 연구, 안혜영 외(2008)의 연구, 하주영 외(2009)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대학시절에 이루어지는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재확립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

45) 이미경, 피터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1.

46) 류인자, 앞의 글, 2010.

47)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9 ; 23(2) : 262-272.

48) 김정아, 정재임, 차영자, 간호대학생의 도덕 판단력과 간호윤리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북전문대학논문집 2007 : 283-305.

추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여러 문헌에서 임상실습 동안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료윤리적 문제의 직·간접적 체험이 기존 대상자가 갖고 있었던 윤리적 기준이나 가치관의 혼돈과 갈등을 경험함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시기별로 윤리적 가치관과 갈등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윤리적 가치관 확립이 확고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교육을 통해 습득되고 체계화된다는 보고가 있고,⁴⁹⁾ 특히 대학시절에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윤리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다^{50,51)}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윤리교육은 저학년에서 한 학기로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고학년에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 윤리적 의사결정에 혼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⁵²⁾ 그런데 간호대학 시기의 윤리교육은 그 어느 시기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보고가 있듯이, 윤리교육을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수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상황을 통해 문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학년과 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적 특성과 윤리적 성향을 비교하여 간호윤리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A시와 G도에 소재하는 6개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임의추출하였는데,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1학년 476명과 4학년 335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으로 구성되었고, 자료분석은 SPSS window version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χ^2 -tes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대한 비교에서는 1학년이 4학년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윤리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모두 의무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것은 태아생명권, 인공수정, 태아진단, 미숙아생명권, 장기이식, 생명공학이었고, 공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이었다.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는 태아생명권, 미숙아 생명권에서는 1학년이 4학년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

49)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앞의 글. 2007.

50) 김은희, 이은주, 홍성정.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적 가치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0 ; 13(3) : 243-254.

51) Rest JR, Narvaez D.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94.

52) 권영미. 앞의 글. 2002.

게 나타났고, 인공임신중절, 뇌사에서는 4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공리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차이 비교에서 1학년에서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기독교가 무교보다, 농어촌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4학년에서는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이 참여하는 대상에 비하여 의무주의적 성향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

셋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에 대한 차이 비교에서는 1학년에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확립정도가 확고한 사람, 생명의료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는 사람,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생명의료윤리 문제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서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학년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지식이나 정보 획득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대상이,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 생명의료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수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서 의무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확립을 위한 간호윤리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학년별 특성에 따라 교육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수를 늘려 동일한 도구와 방법에 의한 반복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동일한 대상자를 가지고 시간경과에 따라 생명의료윤리적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종단적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생명의료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㉞

색인어

생명의료윤리, 의무주의, 공리주의, 간호대학생

A Comparison of First-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KIM Eun Hee*, LEE Eunjoo**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 to identify whether the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fluences their ethical values and, secondly,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 the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A total of 811 nursing students (355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al experience [CPE]; 476 students with no clinical practice [NCP]) were recruited from six different BSN programs in one city i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 χ^2 -test, a t-test, a one-way ANOVA, and a Scheffé test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he values or ethical attitudes of the two groups, NCP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more deontological orientation (2.76 for CPE students; 2.81 for NCP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sponses of the two groups in the following areas: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the right to life of newborns, artificial abortion, and brain death. For the NCP students, the predicting variables were the following: ethical values, club participation, and source for information or knowledge of biomedical ethic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argued that the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in biomedical ethics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biomedical ethics, deontology, utilitarianism, nursing students

* Department of Nursing, Kyongbuk Science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